

「女性발전기본법」내년 제정

世推委 金명 報告 세무·경찰·철도大學 여성할당 늘려

공기업 신규채용 가산점 5%로

정부는 여성지위향상과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「여성발전기본법」(가칭)을 내년 상반기

기까지 제정해 고용·교육·복지·인권 등 각 부문에 걸쳐 여성차별적 요소를 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

하기로 했다. 또 세무대학 경찰대학 철도전문대학 등 공무원 양성기관의 여성제한 할당비율을 97년부터 대폭 늘리며 공기업 신규채용시 도

입기 위한 여성가산점제도의 가산 폭은 군복무자가 산점과 같은 5%로 하기로 했다. 세계화추진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여성의 사

회적 역할과 지위향상을 위한 9대 중점정책방안을 마련해 금명간 金泳三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. 9월 세추위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사회전반에 뿌

리박힌 여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속히 개선하기 위한

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. 정부는 또 △공공교육아협 동조합 설립 및 종교시설을 교육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융자 및 시설비 지원 확대 △국민학교와 사회복지관을 이용한 「방과후 아동지도제도」의 전국적 도입을 위한 예산지원 △여성개발원내 여성관련 정보네트워킹 시설 등을 추진키로 했다. 여성할당제 확대의 경

정원의 11%에서 97년 20%, 98년 30%, 2000년 50%로 여성인력생 늘리고 철도전문대학은 99년부터 99년까지 현재 3%에서 50%로, 경찰학은 97년부터 현재 4%에서 10% 이상으로 대폭 대하며 궁극적으로 여성 할당율을 폐지키로 했다.

TV투데이

해방공간의 주역 - 仁村 金性洙 (7면)

2회 「바른교육 - 큰사람 만들기」 포

오늘 오후 1시반 高大 인촌기념관 주제 「한국인의 윤리